

일·구직 않고 '그냥 쉬는' 인구 1년새 24만명 증가

8월 비경제활동인구 1621만명...전년 동월 대비 4만8000명 늘어 청년층 "원하는 일자리 없어"...비임금근로자도 6만명 넘게 감소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 연로 등 별다른 사유 없이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그냥 쉬는' 인구가 1년 새 24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21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8000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 연령 인구 중 취업을 하지 않았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인구를 뜻한다. 비경제활동인구를 활동상태별로 보면 '가사'가

596만500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325만5000명), '재학·수강 등'(325만명), '연로'(253만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 항목의 전년 대비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 이는 '쉬었음'이라 답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쉬었음' 인구는 256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232만2000명) 대비 24만5000명 늘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4.4%에서 올해 15.8%로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8만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70대

이상(6만5000명), 20대(5만4000명), 50대(2만1000명), 30대(1만7000명)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은퇴 후에도 '제 2의 인생'을 준비하는 등 '연로'로 답하는 고령층이 줄어들면서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가 늘어났고, 경기 불황으로 인한 기업들의 채용 감소 등이 20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쉬었음'의 주된 이유가 달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15-29세 청년층에서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이 30.8%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음'(20.9%), '몸이 좋지 않아서'(16.0%) 순으로 많았다. 청년층 외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몸이 좋지 않

아서' 순 비중이 높았다. '경제 허리' 연령인 30·40·50대에서는 공통적으로 '몸이 좋지 않아서'에 이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유없이 그냥 쉬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1년 내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년 내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 8월 기준 336만1000명으로 전년(341만8000명) 대비 5만7000명(1.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3%에서 20.7%로 0.4%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비임금근로자도 6만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소매업과 농림어업, 숙박·음식점 등의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지난 8월 기준 665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7000명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20년 8월(-16만1000명) 코로나19 영향으로 비임금근로자가 대폭 감소한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3%포인트 하락해 23.1%를 기록했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에서 전년 대비 5만4000명 줄어 가장 감소폭이 컸고, 농림어업(-4만3000명), 숙박·음식점(-2만2000명) 순으로 줄었다. 비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농림어업이 22.5%(149만7000명)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16.1%·107만4000명), 숙박·음식점(12.8%·85만2000명) 순이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빠를수록 좋아...올해가 골든타임"

광주 찾아 지역 여론 청취·설명회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 중인 '4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광주를 찾아 지역 여론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은 6일 지역 순회 첫 일정으로 광주를 선택,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유동욱 국민연금개혁지원단 부단장은 "OECD 국가 평균 대비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매일 8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기금 소진 시기를 늘려야 기존 가입자의 노후 안정은 물론 신규 가입자의 유입도 가능하다"면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내놓은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기 위한 '자동조정장치'와 연령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의 개혁안을 두고 소득대체율과 연령대별 차등 적용 등에서 여야 간 입장차를 보이



면서 국회 통과에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6년과 2027년 각각 지방선거와 대선이라는 대형 정치 이벤트가 있다는 점에서, 올해가 개혁안 통과에 '골든타임'이라는 입장이다. 유동욱 부단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금개혁 필

요성과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이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건복지부는 지역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면서 연금개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자 간담회 이후 전남대를 찾아 대학생 대상 상생의 연금개혁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정보문화진흥원 1인 창조기업센터 입주 기업 수출 MOU

남도소반, 말레이시아 기업과 체결...스낵류 동남아 수출 확대

(재)전남정보문화진흥원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인 남도소반이 2024 국가식품클러스터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말레이시아 기업과 수출 MOU를 체결했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국내 우수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공동 주최로 지난 10월 전북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수출상담회에서 남도소반(주)은 자사의 대

표 제품인 오징어 스낵과 오징어 튀김 스낵을 전시하여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두 제품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말레이시아 기업 1곳(Golden Excellent Trading)과 MOU를 체결하며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동남아 전역으로의 수출 확대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전남도 로컬 식재료를 활용한 밀키트 제조기업인 남도소반(주)은 지난 2021년 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했다. 이후 공

간 및 시설 지원, 창업 교육, 전문가 자문 운영, 선택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입주기업 지원 혜택을 받으며 반건조 생선 제조 기업에서 수산 가공 식품 제조 및 수출 기업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이인용 원장은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전남 기업의 우수한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귀뚜라미 '2024년 한국의 소비자보호지수' 4년 연속 우수기업 선정

은열가전 부문 유일한 우수 등급

(주)귀뚜라미는 6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발표한 '2024년 한국의 소비자보호지수(KCPI)'에서 은열가전 부문 우수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 귀뚜라미는 '소비자보호 인식 영역'(70%)과 '소비자보호 경험 영역'(30%)으로 구성된 KCPI 세부 조사항목에서 고른 점수를 획득하며, 지난 2021년 첫 번째 조사 이후 은열가전 부문 유일한 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귀뚜라미는 보일러 업계에서 가장 먼저 온수매트르를 선보이며 지난 2020년부터 '3세대 카본매트 온돌'을 출시했다.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 온돌은 온수매트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정밀 온도 제어 등 속건 기술을 계승·발전시켜 난방매트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는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을 비롯해, 최고 55도까지 설정이 가능한 '찜



질 모드', '취침 모드', '좌우 분리 난방' 등 기능을 탑재했다. 귀뚜라미는 본사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귀뚜라미몰'을 운영하며 소비자들의 쇼핑 편의와 사후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귀뚜라미보일러 관계자는 "한국의 소비자보호지수 은열가전 부문 4년 연속 우수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품질 향상과 고객 만족을 위해 혁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관원 전남지원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재인증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은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4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남지원은 올해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기관 최초로 3연속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재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학·연구기관 등의 과학기

술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 및 역량강화,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심사는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 활동수준, 관계자 안전의식 분야에 관한 27개 항목을 평가하며,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을 선정해 유효기간 2년짜리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남테크노파크 뿌리산업 선도기업 모집

3차공고 수혜기업 29일까지

(재)전남테크노파크가 곡성군, 무안군, 영광군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3차공고 수혜기업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전남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 뿌리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기업 성장단계별 체계적으로 육성해 고도 성장할 기반을 구축해주는 사업으로 전남도내 15개 시군 중 현

제 곡성·무안·영광군의 예산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번 3차 공고의 지원 규모는 2억여원으로, 비R&D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이 사업은 전남 뿌리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최적의 프로그램"이라며 "지역 보유한 뿌리기업들이 미래 신기술을 사업화로 연결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백종원, 더본코리아 상장... '4천억대 주식부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증시 상승으로 4000억원대 주식 자산가가 됐다. 6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한 더본코리아는 공모가(3만4000원)를 훌쩍 넘어 4만6350원에 거래를 시작해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장 초반 한때 6만4500원까지 치솟았다. 주가는 장중 내내 6만원 안팎에서 등락하다가 공모가보다 51.2% 오른 5만1400원으로 마감했다. 더본코리아의 시가총액은 7435억원을 기록했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주식 879만2850주

(60.78%)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 이날 증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백 대표의 보유 주식 가치는 4519억5249만원에 이른다. 장중 최고가인 6만4천500원을 기준으로 하면 백 대표의 주식 가치는 5671억원을 넘는다. 백 대표와 함께 40여년 전 인연을 맺어 더본코리아의 전신인 다인인더스트리얼을 설립한 강석원 대표는 주식 207만6660주(공모 이후 지분율 14.36%)를 보유해 증가 기준으로 167억432만원의 주식 부자가 됐다. /연합뉴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13.37포인트(0.52%) 하락한 2563.51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트럼프 당선 소식에 국내 금융시장 요동

주식·채권·환율 '트리플 약세' 미국 제 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6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13.37포인트(0.52%) 하락한 2563.51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5.02포인트(0.58%) 오른 2591.90으로 출발해 강보합세를 보이다 장중 하락세로 돌아섰다. 외국인이 1077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92억원, 499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크게 오르며 1400원 턱 밑까지 올라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5시 6분 기준 전장보다 17.35원 오른 1395.98원에 거래됐다. 국고채 금리도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2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960%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3.134%로 6.1bp 상승했고,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5.2bp, 4.1bp 상승해 연 3.023%, 연 2.980%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3.038%로 3.9bp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3.7bp, 3.5bp 상승해 연 2.948%, 연 2.865%를 기록했다. 트럼프 수혜자산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가격도 들쭉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이날 최고가가 전일보다 7.96% 상승한 1억382만 4000원을 기록했다. 오후 5시 기준 전일(9617만원) 대비 약 3.6% 증가한 9966만원 선에서 거래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코스피 | 2563.51 (-13.37) |
| ↓ 코스닥 | 743.31 (-8.50) |
| ↑ 금리(국고채 3년) | 2.960(+0.042) |
| ↑ 환율(USD) | 1393.80(+15.20) |